

제15차 세계 에이즈 회의

# 학술대회가 아닌 ‘정치대회’로 변질

:: 최강원 서울대의대 감염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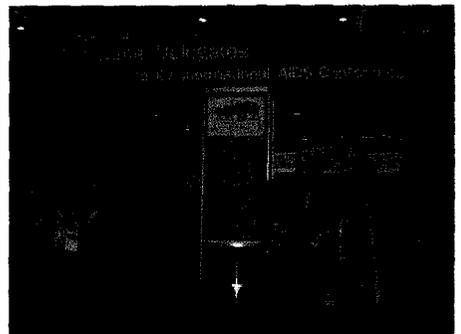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7월 11~16일 태국 방콕에서 제15차 세계 에이즈 회의(International AIDS Conference)가 열렸다. 2년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14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그 간 에이즈 관련 연구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볼 겸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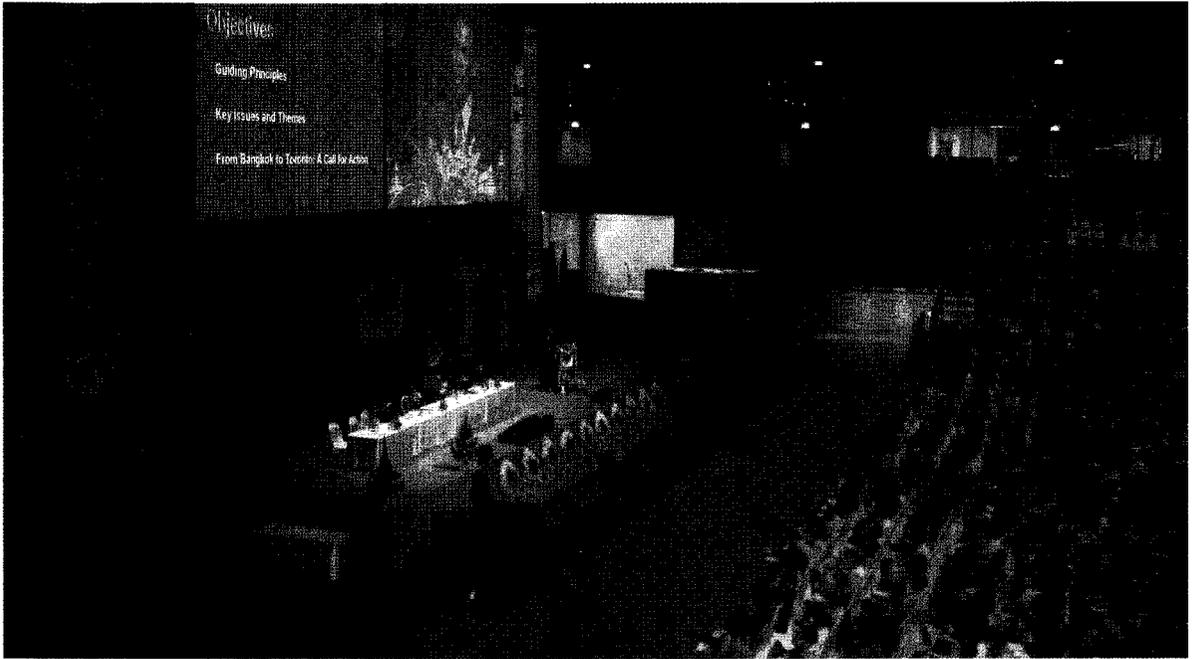
거대한 규모와 뜻밖의 사건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세계 에이즈 회의는 이번에도 이런 점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았다. 방콕 교외에 새로 지은 거대한 convention center를 가득 메운 사람의 물결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2만 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참석자 수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과학자는 사상 최소였다는 사실이 우선 놀라웠다.

## 에이즈관리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집중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이 거대한 모임이 학술대회가 아니고, 완전히 “정치”대회로 변질(?)된 사실이다. 많은 청중이 모이는 전체 회의에는 내노라 하는 세계의 정치가들이 열변을 토하는 장소가 되었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물론, 벨스 만델라 남아공 전대통령, 무세비니 우간다 대통령, 탁신 태국 총리, 소니아 인도 여당 당수 등 프로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나름대로의 에이즈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회는 에이즈의 기초 연구나 진료를 위한 학술회의라기 보다는 에이즈 관리를 위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중심을 둔 정치적 토론의 장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미디어의 관심을 독차지하였던 것은 에이즈 활동가들의 과격한 시위이었는데, 아유와 물리적 접촉으로





강대국 연사의 연설을 지지하거나 메이저 제약회사의 전시관 (booth)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정치가와 활동가들이 내건 최대 이슈는 비싼 치료제를 누구나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른바 치료제 접근권의 분제였다.

최근 효과적인 여러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어,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과가 좋아도 약 값이 너무 비싸다면,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니, 요컨대 돈 없는 나라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는 것이다.

### “빈약한 학문적 성과”

HIV 감염자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7%(4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판매하는 제약회사가 스스로 특허를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자선 단체도 아니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 넣은 제약회사가 스스로 특허를 포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회사가 있을까? 특정 국가나 지역에 선별적으로 특허를 주는 방법도 있으나, 가난한 제3세계에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에이즈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

출은 지난 7년 사이에 15배로 급증하여, 2003년에는 50억 US dollar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금 수요도 급증하여 2007년에는 2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재정 수요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부자 나라 클럽에서 가난한 개도국을 위하여 산타클로스 역할을 맡을까? 전세계에서 온전한 많은 참석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였으나, 나에게서는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이슈들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나의 일차적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보다 의학적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이번 학회는 Science지 기자의 표현을 빌면 “매우 빈약한 학문적 성과(very little science)”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각 분야에서 돌파구가 될 획기적 발견이나 발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상 최초의 과학자가 참석할 사상 최대의 에이즈학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학자나 의사들에게는 큰 잔치를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실망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에이즈 연구자나 의사를 위한 별도의 전문학회가 필요하며, 전문가를 위한 소규모지만 알찬 학회가 이미 존재한다. 정치가 난무하는 거대한 속빈 강정 학회보다는 실속 있고, 알맹이 있는 전문가의 모임에서 에이즈 극복을 위한 전세계인의 열망이 결실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 같다.